

## 『누구나 마을 아카이브』

이영남, 이현정, 이경래, 한동민, 강원재, 윤충로, 김시동,  
최서영 지음, 더 페이퍼, 2018

임양미\*

누구나 마을 아카이브는 책 제목만을 보서는 무척 생소하게 여겨졌다. “마을 + 아카이브”라니. 아카이브라는 말은 공공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록보관소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 책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마을을 단위로 하는 민간의 기록을 수집, 보존하겠다는 것이다. 마을의 기록을 어떻게 수집, 보존한다는 것인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에 끌려 읽게 된 “누구나 마을 아카이브”는 그동안 아카이브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는 내용이었다.

이 책은 각 분야의 전문가 8명이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며 느꼈던 일들을 진솔하고 편안하게 풀어내고 있다. 1장 “마을기록의 이해”는 강의 내용을 풀어쓴 방식으로 써 있어서 쉽게 읽어나갈 수 있다. 기록의 역사와 기록자의 역할, 기록에 대한 저자의 생각 등을 담고 있다.

2장 “공동체 아카이빙을 시작하며”는 공동체의 기록을 수집, 보존하는 활동을 하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동체는 지역을 근거로 하는 마을이 기본이 되지만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이 될 수도 있

---

\* 한신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석사.

다. 이 글에서는 민간기록이 ‘리빙 아카이브(Living Archive)’를 지향한다고 하였다. 기록이 살아 있는 유기체 같은 성격을 갖게 하여 처음 생산된 기록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덧붙여 계속 활용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감의 아카이브, 치유의 아카이브를 지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3강 “도시재생과 공동체 아카이브”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한 아카이브 구축 활동을 담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공동체가 해체 위기에 직면하면서 도시재생 프로젝트, “마을 만들기”가 등장하였다. 마을 만들기는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였지만 이제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를 하지는 민주도형 민관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마을 아카이브 운동이 지속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4강 “수원의 지역적 특징과 역사·문화적 특성”은 수원의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쉽고 간단하게 풀어놓은 글이다. 수원은 최근 영화에서 나온 이후 수원 왕갈비를 떠올리거나 수원화성을 생각하는 정도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 글을 통해 수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게 하였다. 이는 지역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게 남아 있어야 가능한 일로 지역의 시민들이 스스로를 기록함으로써 기록의 주권을 시민들이 되찾기를 바라고 있다.

5강 “다시세운 프로젝트”는 세운상가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호황과 쇠락을 거쳐 최근 세운상가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6강 “구술사란 무엇인가”는 구술사의 개념과 특징, 사례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에서 자기를 다시 불러오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이 존재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다시 스스로 반추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라고 적고 있는 부분에서 구술사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7강 “지역 아카이브의 사회적 역할”은 강원도 원주시에서 시민들이 참여하여 민간기록을 수집하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동안의

활동과정, 기록하는 방법, 정리된 기록의 공유 방법 등에 대해 진솔하게 적고 있다.

8강 “골목잡지(사이다) 마을기록을 담다”는 “사이다”라는 잡지를 통해 수원의 골목과 골목, 마을과 마을, 사람과 사람에 대한 소소한 얘기를 담아내고 있는 마을의 기록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마을의 이야기와 일상의 삶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시민기록자를 양성하고 출판, 도서전 등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가면서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소중한 삶으로, 지역의 역사로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책을 읽은 후에 제목을 보면서 처음 느꼈던 마을 아카이브에 대한 생소함을 덜 수 있었다. 마을에 아카이브가 가능할까하는 의구심이 많이 줄어들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고 나도 내 위치에서 기록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다.

이 책은 아카이브에 대해 아무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쉽게 읽어나갈 수 있도록 쓰여 있기 때문에 어른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이 읽어도 좋을 책으로 추천하고 싶다. 기록은 나와 동떨어진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기록될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누구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